

전국최초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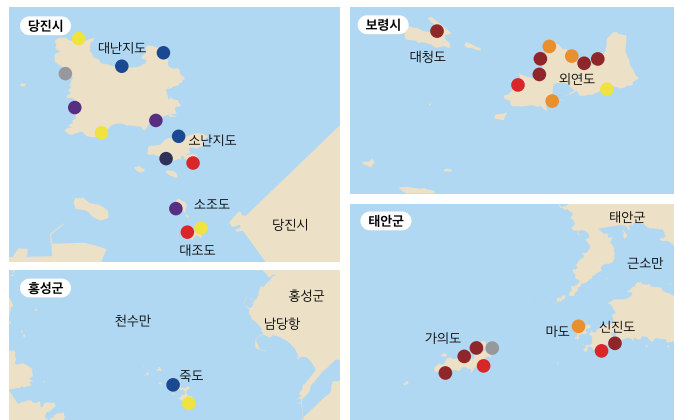
충남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한걸음 더 앞으로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센터장 | 이상우 연구원 | 송혜영 연구원

충남은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분포현황을 도시·연안·침적쓰레기로 세분화하여 전수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충남도는 도내 도시 및 육지부
해안가에 대한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실태 전수조사**를 완료
하였고, 바닷속 침적쓰레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수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처 : 도시지역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연안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연안정화활동이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쓰레기 반출 시기**가
대부분 **비정기적**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장기방치, 불법소각 등)



장기방치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의
분리집하시설 부재



불법소각



수시 관리체계
미흡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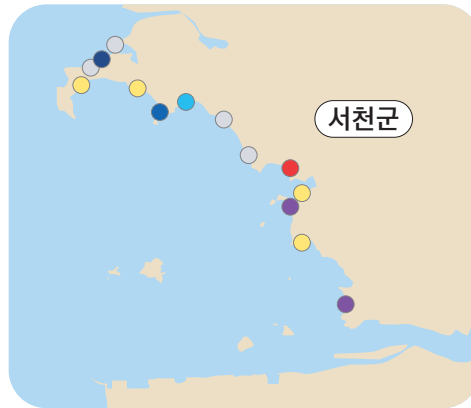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 (연안 지역)

해양쓰레기 오염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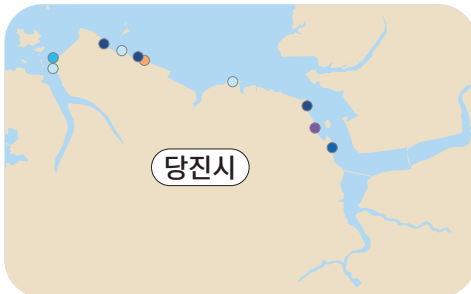


홍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 쓰레기양이 적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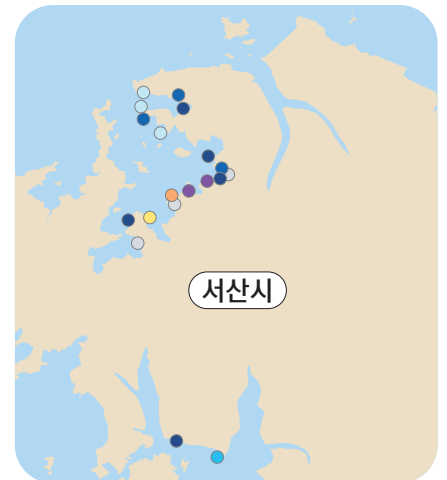
아산시와 당진시는 대부분 비록 인공해안선이지만 어업과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쓰레기가 밀집된 모습을 보여요.



서산시 is 중왕리 지역에 오염도가 높고 스티로폼 부표와 생활쓰레기가 주를 이뤄요.



서천군은 금강하구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초목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보령시는 오천항 지역이 쓰레기가 많았고, 양식용 자재, 생활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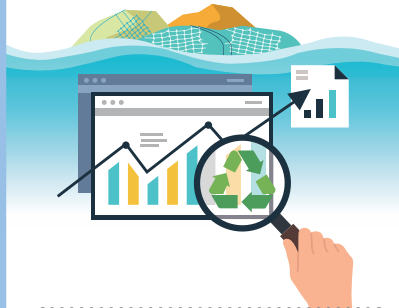
태안군은 타 시군에 비해 해양쓰레기 오염도 등급이 전반적으로 높았어요. 특히, 구매항 지역이 오염도가 매우 높고 대형 양식장의 폐자재와 스티로폼 부표 등 양식장 시설 기인의 쓰레기가 많아요. 또한, 불법소각도 빈번해요.



충청남도는 해양쓰레기 분포지도를 통해
 광역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 어업쓰레기 재활용,
 전용 관리선박(수거선, 운반선) 연계,
 반려 해변* 연대 참여 등의 관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 바다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 운영**



**어업기인 쓰레기 재활용
확대(부표, 폐어구)**



**전용 관리선박 배치 운용,
주기적 수거·운반 체계구축**



**지역 주도 반려해변
사업추진,
시민과학 기반 자율관리**



**국제공동
대응체계 마련**



**도민 인식개선 활동 확대,
지역해양환경
교육센터 운영**

*반려해변 : 기업, 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